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례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51
2022.5.15.

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_요한1서 4:11~1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3 특집기획 | 7 유소년주일 연합예배 | 10 장애인사역부 교우간증 | 13 목사안수 소감 |
| 4-5 유아세례 | 8 장애인주일예배 | 11 돌봄타운 소개 | 14 찬양일기 |
| 6 유아주일 만나데이 | 9 장애인사역부 부서초청 | 12 광야의교회 야외예배 | 15 겨자씨나눔 |



오월은 푸르구나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이 방주에 머무르다가 땅이 마르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모습 같습니다. 각자 저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이 푸르는 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알아보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습도 좋지만 방주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노아처럼 교회가 열리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월은 아이들처럼 참 푸릅니다.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④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목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옥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적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3:16)에서 출발하여,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요20:21)을 회복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선교적 과제를 발견하고(롬12:1-2), 선교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실천을 지향하는 선교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실천한다.

-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해석(요3:16)
- 교회의 축소된 이해를 넘어 본질을 회복하고(엡1:23)
- 선교적 파송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근본적 소명임을 깨닫고(요20:21)
- 교회와 성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일상과 지역사회와 세계 안에서 증거와 삶으로 실천한다.

선교적 교회는 오늘의 상황에서 시대적 요청이다. 이것은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한국교회가 가진 교회의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이해하는 방주적 교회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근거한 분리된 교회론, 신앙생활을 교회 건물 안에서의 활동과 동일시하는 건물 교회론, 프로그램과 연관된 교회론이다.

이러한 교회론은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약속한 교회에 비추어 볼 때 이해와 활동의 범위가 좁다. 교회론에 따라 신앙생활과 목회활동의 범주가 결정된다. 편협한 교회론은 편협한 신앙생활과 목회활동을 형성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명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를 담고 있다.

에베소서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보편적 교회)를 증거한다. 특히 "교회는 그(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충만함이다"(엡1:23) 에베소서에서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존재하며 활동하는 그의 현존이며, 그의 활동의 범위는 교회를 포함한 세상과 모든 피조세계이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세상과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하도록 부름받고 세워진 그의 몸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이미지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지상사역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품고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의 기반이며 실천동력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를 해외 지역으로 파송하고, 그를 통해서 선교활동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요20:21, 17:18)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하나

오늘의 지역교회는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멀리하며 응답하지 않는 세상과 지역에 대하여 이전 선교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둘째 교회의 선교현장은 지역사회와 세계 전체이다. 기존의 선교현장을 주로 선교사를 파송 한 해외지역만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은 전 세계가 선교현장(mission in six continents)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계교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면서 세계선교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현장에 가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출13:21, 신31:3,8)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적 책임과 소명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가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구원은 유대전승에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 활동을 보셨다고 말하며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다. 고넬료 하인이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기도중에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되는 짐승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본다. 이 내용의 의미를 묵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맞이하며 그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인종과 문화, 종교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비로서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사건은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범주(인종, 문화, 종교, 지리)를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허물고(행1:8)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과 세계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교회가 인식하지 못했던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 세계로 이끌어 가지지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위임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지만,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선교의 모형을 알게 된다. 교회는 기존의 자신이 가진 좁은 선교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선교활동을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는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제한된 인식과 경험에 머물기를 고집하지 말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한 것 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과 시대적 과제와 필요를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것이다.

베트남으로 파송된 어느 선교사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였다. 그는 베트남이 개방되면서 가장 먼저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았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베트남에 파송된 첫번째 선교사로 뜨거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선교사의 공개적인 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선교사의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무력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교사건을 경험하면서 선교관에 전환이 왔다. 현지인과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현지인을 바라보던 중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기 보다 먼저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베트남인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선교사는 파송을 받을 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며, 그래서 자신이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신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다. 그로부터 하나님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디아코니아 사역이라는 점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도,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줌으로 베트남인들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현실교회의 제한된 인식과 경험을 넘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선교영역을 확장해 가신다. 한국교회는 짧은 교회역사에 비하여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해외지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어가며 고립되어 간다. 기존의 전도방식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으며, 사회도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교회가 급성장한 70년대와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사회 속에 존재한다.

오늘의 지역교회는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멀리하며 응답하지 않는 세상과 지역에 대하여 이전 선교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세상이 아프면 교회도 아프고,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코로나가 준 교훈은 교회와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다. 선교적 교회는 기존의 교회와 세상을 성숙으로 분리하는 “분리된 교회론”과, “건물 중심의 교회론”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은 단지 교회의 전도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는 교회 중심의 좁은 선교인식을 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만을 위한 건물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마당)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안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현장의 교회사제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주민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선교활동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양육해야 할 아이들



곽시울(곽경록, 송연화)

우리 시울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고 따뜻하면서도 마음이 강인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김하준(김알렉스, 성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준이로 자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준이를 키우는 은혜로운 부모 되기를 기도합니다.



곽지안(곽경, 서오경)

1. 온화한 성품과 사랑 가득한 심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며, 항상 건강하고
2. 지혜롭게 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3. 지안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백지훈(백동준, 조유진)

예수님 닮은 사랑과 지혜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영육간의 건강과 삶의 평안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되게 하소서



국예나(국진형, 이보연)

예나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고 바른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받아, 가득 채워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랑이 많고 따뜻하며 웃음이 많은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서소이(서민욱, 이선영)

1. 소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2. 소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3. 4년간의 해외(이스라엘) 거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김윤우(김해준, 서혜린)

우리 윤우가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을 나누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아윤(서일배, 허은애)

하나님! 아윤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웃음이 많은 따뜻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맡겨 주신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할 것을 결단합니다.



김윤재(김형균, 윤수영)

1. 윤재는 주님이 계획하신 바 태어났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2. 삶의 크고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 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옵소서
3. 항상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도록 아이의 곁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석주성, 석주안(석범준, 이용미)

1.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3.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세요.



김주은, 김진석(김승현, 강민정)

하나님의 귀한 딸 주은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은이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신앙의 선배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진석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석이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신앙의 선배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주세요.



송재웅(송창환, 정유경)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지길
영과 육의 건강을 주셔서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길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편지 교우 소감

어느 날 날아온 편지 한 통

어느 날 교회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 뭐 그저 그런 서신이겠지. 봉투를 뜯고 별 기대 없이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곤 나도 모르게 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시며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내가 너를 깨우러 왔단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얼른 깨우려고.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내가, 내가 영적 잠에 빠지려 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돼!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마고 또 그간 내가 교회 봉사한 것이 얼마인데.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울무였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자만을 경계하셨고 교만을 미워하셨다. 나는 조용히 나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먼저 비대면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에 성실히 임한 듯 착각에 빠지기까지 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하게 된 것이다. 대면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며 축복이고 기쁨이다.

여기서 잠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75세의 아직은 노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유방암 환우이다. 지난해 9월 유방암 확진을 받고 12월부터 선행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말쑥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대면 예배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저 상태가 좋아지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만 있었다. 그러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글을 받고 부끄럽고 한심하기까지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결단하였다. 할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만 있으면 꼭, 열심히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마침 성경통독 중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은 구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말씀. 너무나 유명해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 “다시 본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닌 “위로 본다”는 엄청난 의미. 사람들은 얼마든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볼 수 있다. 그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러나 시선을 위로 향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위에 속한, 위를 향한 시선을 가질 때 사울은 바울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기에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스데반을 비롯한 수 많은 순교자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린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이름 없는 수 많은 순교자들. 그들도 이렇게 모두 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나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에 빠져들면 안된다. 잠이 너를 삼키기 전에 어서 일어나라. 잠을 조심해라. 잠이란 놈은 한번 자기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단다. 잠의 결국은 죽음, 멸망임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담임목사님의 편지 한 통은 내 영혼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신 고마우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명인숙 권사 / 6교구



심하연(심인근, 박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연이를 우리 가정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이에게 건강과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지유(안종건, 박지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복된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딸이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유의 매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됨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르게 자라나는 지유가 되도록 보살펴주세요.



이서진(이승현, 고유미)

1. 우리 서진이가 건강한 심신과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
2.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3. 서진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현규(이의섭, 김지연)

현규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현규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이서(정석훈, 박이연)

하나님의 자녀 된 정이서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지원, 이지후(이호준, 탁희정)

1.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원이 되길
2.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지원이 되길
3. 건강하고 지혜로운 지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1.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후가 되길
2.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지후가 되길
3. 건강하고 지혜로운 지후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주일 만나만나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예배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주일(5월 1일)을 맞이하여 유아숲에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 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친구들과 서로를 축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라는 목적을 가지고 ‘유아숲 만나만나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아숲 어린이 134명, 교사 80명과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오랜만에 풍성하고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한 뮤지컬 ‘하늘나라 신기한 저울’을 통해 하나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이들도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하늘나라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아숲 친구들이 오랜만에 성전에 왔다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열심히 뛰며 찬양하며 활기차게 예배드리는 모습에 모두가 힘든 줄도 몰랐던 유아숲 만나만나데이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119텔레이 기도를 시작으로 행사 당일 유아숲 7개 부서 선생님들이 연합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각자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미 전도사 / 유아숲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가슴이 너무 벅차요!

지난 5월 1일(주일) 유소년숲 모든 공동체(유년 1·2부, 초등 1·2부, 소년 1·2부, 어와나 스팅스·티앤티)는 만 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제로, 약 350여명의 어린이들과 교사가 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특별히 준비된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유소년숲 연합예배의 시작은 웰컴팀의 환영과 등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웰컴부스에서 등록 후 해피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팔찌를 손목에 매고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예배는 어린이 찬양팀(L-KIDS, 엘키즈)의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이여, 오직 성령이, 예수님 사랑이, 너와 나의 모습!’의 찬양이 차례로 이어지며, 모든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와 울동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어린이주일 격려사에 이어 유소년숲 교역자들 준비한 ‘말씀 손유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유소년숲 교육위원장 임익수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에 이어, 복음제시 ‘샌드아트’영상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부 순서로 버블쇼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누구보다 유소년숲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후원해 주신 푸짐한 선물을 해피권 추첨을 통하여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신 각 부서 부장님, 권사님, 선생님, 방송팀, 웰컴팀, 찬양팀 섬김이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소년숲 연합예배’를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소년숲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늘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주 안에서 연결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는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4월 17일이 장애인주일입니다. 동시에 이날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님의교회에서는 부활주일과 장애인주일을 각각 독립적으로 집중하여 지키기 위해 4월 24일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2년 장애인 주일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소통의 단절로 인한 교류의 부재, 교류의 단절로 인한 공감의 부재, 공감의 단절로 인한 배려가 부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주일을 주시며 지키라 명하시는 것은 단절의 시대를 마감하고 연결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서로 연결되기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배려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연결되는 장애인 주일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일예배 광고, 기도, 성경봉독, 찬양 순서를 맡아 주안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연결’되고, 부서의 사역 소식을 소개 영상과 함글함글에 실린 이야기들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감으로 연결’되고, 부서 초청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환대함으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의 고리들이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몸부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이어짐이 계속된다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주일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가 해오던 역할을 그저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담당할 뿐입니다. 일 년에 한번 특별하게 반짝이는 장애인 주일이 아닌, 매 주일이 반짝 반짝 빛나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주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됩시다.



3부 예배 예배다부 특송



3부 예배 기도(김은희 집사)



3부 예배 성경봉독(김성규 집사)



주님의교회 영상 뉴스(사랑나무 김범준 성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5-16)

배운환 목사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사역부
부서초청예배

예배에 초대합니다

사랑나무 초청 예배

5월 1일 사랑나무 초청예배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혼내시지도 야단치시도 않으셨고, 직접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 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나무 친구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나무 초청 예배에 함께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사랑나무 친구들이 더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참여한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에바다 초청 예배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과 부서초청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살롬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키며 다음세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날인 것과 동시에 주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서로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 그리고 서로가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랑나무, 에바다 부서 예배 초청에 응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동역의 끈을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첫사랑에서 끝사랑이 되기까지

제가 주님의교회를 출석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교회에 출석할 당시에는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정립 전자 기숙사에 머물러서 주님의교회에 출석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또한 같이 다니는 집사님들과 같이 뜻깊은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면서 전농동, 길동을 거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신내동까지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가용이 있었기에 멀어도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가용이 있어도 거의 주일에만 운행하였기에 교회용(?)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거의 운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보험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를 처분하고 바이크를 구입하게 되었고 교회는 지하철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다니면 3~40분 걸리는 거리인데 지하철로 다니니 거의 1시간 30분 내외가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저의 지인들은 왜 교회를 그리 먼 곳까지 다니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첫사랑이 끝사랑이 돼야죠."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처음 영접하였고, 제 신앙생활의 원천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동관 집사

현실과 꿈 사이

장 : 장소 따라 마음만 가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애 : 애달픔에 잠길 때는 차라리 하늘을 나는 꿈을 꾸련다

인 : 인내의 날이 다하면 주님 계신 곳에서 마음껏 날아보리라

의 :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설 때에 위로해 주실 주님 생각에

날 :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장 : 장차 받을 면류관 있어 현재의 고난 견뎌보지만

애 : 애달픈 눈물이 마음에 담겨 뚝뚝배 한 척이 닳을 올리고

인 : 인애하신 구세주를 향해 나의 마음 싣고 갑니다

의 :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설 때 위로해 주실 주님 생각에

날 :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장 : 장난삼아 던져 온 말 한 마디에 내 마음은 또 생채기 나니

애 : 애써 마음 다잡고 태연하게 보이려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네

인 :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시니

의 :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설 때에 위로해 주실 주님 생각에

날 :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장 : 장날이면 시끌벅적 소리 들리니 내마음도 거기 머문다

애 : 애들이 장난치며 휘돌다 넘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머문다

인 : 인사하는 이웃들이 고맙고 반가워 내 마음도 그들 곁에 함께 머문다

의 :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설 때에 위로해 주실 주님 생각에

날 :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장 : 장래에 하고 싶은 것들 물어온다면 한 가지 대답할 말이

애 : 애들처럼 방방이 위에서 하늘을 향해 뛰어보고 싶어요

인 : 인사하며 반겨주는 아이들과 함께 높이 높이 뛰어 보고 싶어요

의 :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설 때에 위로해 주실 주님 생각에

날 :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최금주 집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고난의 때도

나 홀로 있을 때도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선덕 집사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느덧 주님의교회에 등록교인으로 함께 한지도 8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동안 여러 교인들을 접하게 되었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경험해야 했지만 그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무 식구들의 기도가 살아오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흐르므로 젊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작년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파오더니 올해 초부터는 오른쪽 팔이 힘까지 없어지고 팔 안쪽에 밤톨만한 혹까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말겠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팔에 통증도 심하고 힘도 없어져 팔을 움직이기에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이기에 불편함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담당의사 말로는 오른쪽 어깨와 팔로 이어지는 신경 줄과 근육 사이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 급하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보면 신경을 건드려서 오른쪽 팔을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또 다른 환란과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고 저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강인함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4교구 배운환 목사님, 김은선 목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알게 되었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치유의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장애인부 김은선 목사님께서 어깨에 손을 대시고 치유의 기도를 해주셨고 기도 받는 그 순간 어깨가 뜨거우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그 다음에도 이어졌고 한 달 두 달이 지나 지금은 오른쪽 팔 안에 밤톨만한 종양도 사라지고 팔도 예전처럼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이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 강인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살아오면서 외로움이 깊어 낙심하고 지쳐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소망과 기쁨의 삶을 얻길 원합니다. 오랜 시련이 있어도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까지 강인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김훈 집사

구제복지시설 소개
돌봄타운

돌봄타운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돌봄타운은 사회와 이웃에 소외받고 가족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적, 물리적 통합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주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8길 55

전화 : 033) 345-7753

대표 : 전경애 목사 (010-9276-2225)

장애인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장애물 없는 공간 만들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기, 넓고 쾌적한 공간 확보로 안전사고와 전염병에서 장애인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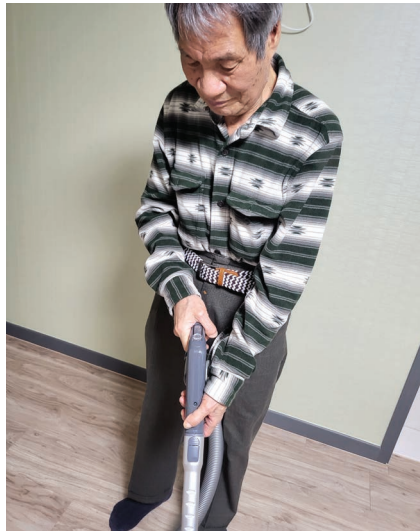


원 가족이 없거나 기능이 상실된 장애인 가족에게 보호와 가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명절, 생일 등을 함께 보내며 언제든 가족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돌봄타운 장애인 가족들은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나 보행, 주방용품 및 가전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익히기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나’의 욕구에 맞는 물건 구입, 은행 업무, 지역사회 봉사, 문화 활동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안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원예치료, 매개치료(애견), 천연 염색 활동, 아로마 테라피 등 장애인 가족의 정서안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타운 기도제목

돌봄타운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직 정부지원이 없어 전반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후원금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가족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세 안수집사 / 구제복지부

광야교회 소식

푸르른 5월 야외예배를 드리다

코로나 엔데믹(endemic)이 선포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고 옥외집회도 허용되는 시점에 맞추어 광야교회에서는 코로나 발병 829일, 영상예배로 전환한지 115주 차 만에 전체 성도들이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야외예배의 기쁨을 누렸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야외예배였기에 성도들의 기대는 더욱 컸다. 그리고 마침내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손꼽아 기다리던 2022년 5월 1일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신록의 향기가 감도는 화창한 봄날에 친히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1일은 어린이주일이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새기며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의 때를 벗고 순진무구(純眞無垢)한 어린이의 심령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하였다. 어른 되기는 쉬우나 부모 되기가 어려우니 부모의 바른 도리를 깨달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다짐하였다. 노소동락(老少同樂)을 통하여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였다.

D-day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 추위를 염려했으나 그런대로 견딜 만하였다. 의외로 돌풍에 가까운 바람이 몰아쳐 예배 순서지가 날아가고 음식에 낙엽이 날아들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구순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광야교회 가족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몹시 정겨웠다. 주방부와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은 고급호텔의 뷔페 수준이었다. 마치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맞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을까 싶다.

식사 후에는 줄넘기와 공 튀겨 올리기, 선물 받기 가위바위보, 어린이 텀블링 공연이 있었고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초등학생 선물 증정과 주변 청소를 끝으로 즐거운 야외예배를 마무리하였다. 말 그대로 오고 있는 하나님나라를 맛보는 하루였다.

어쩌면 작은 규모의 교회라서 가능한 특혜가 아닌가 싶다.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결과물임을 상기하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마음에 담아 귀가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기도가 이어지는 공동체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대홍 장로 / 광야교회



목사안수
소감과 다짐

사랑의 “의의나무”로

샬롬! 저는 2018년 젊은이교구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젊은이분과, 큐티사역부, BPC 결혼예비학교를 담당하며 전임전도사로 지난 4월 21일 제197회 평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교회에서 목회자로 빛어가는 여정을 지나며,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목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부에서 호텔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저는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마흔넷의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늦깎이 전도사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때로는 기도와 축복으로 지지해주신 성도님들과 동료 교역자들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지형 목사

이제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주신 “의의나무”가 되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또한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도록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이고 드러내며 또한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의 걸음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

안녕하세요? 이번 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지인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부터 주님의교회 영어예배부(EM) 어린이 예배(주일, 수요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지인 목사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예배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께 거룩한 자리에 과연 내가 자격있는 사람인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100%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대답이 쉽게 나올 뿐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같이 안수예배 설교 중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목사안수를 받는다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며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은 제게 비슷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길을 걸든지 나와 평생 함께 걸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목사로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모두를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사역

저는 지난 달 21일, 평남노회 196회기에 목사 안수 받은 이진명 목사입니다. 청년부 교육전도사를 거쳐 현재 목양실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회하신 부모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목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함께 경험해서 사역자로 절대 살지 않겠다 다짐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신대원 입학 통보를 받던 날,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사역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어진 사역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강하심이 자라나 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명 목사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길 원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더 관심가지고,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로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혜원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다가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아직은 얼떨떨합니다. ‘목사’라고 불릴 때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안수를 받기 전부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제가 목회자,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낸다면, 목회 사역 또한 사랑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분주한 사역 현장에서 목적과 소망을 잃고, 수단과 도구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회적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더하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쁨까지 누리며 행복한 목사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인 “듣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목사로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혜원 목사



찬양대 찬양일기

기다림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1-5>

샬롬! 저는 4부 예배에서 기타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송인호 형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청소년의 시기에 나쁜 길로 빠지지말아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기타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그후로 악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다니던 교회의 악기들을 하나씩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악기들이 너무 신기하셔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도구’였습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쓰이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교 진학을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실용음악과를 가게 되었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대형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저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으로 그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의 삶도, 신앙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적지는 못하지만, 십수년을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곳이 지금 제가 섬기는 주님의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왔을 때에는 낯설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 모든 것이 처음이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챙겨 주신 4부 찬양팀 목사님과 식구들, 처음 뵙지만 항상 웃으시며 먼저 인사해주시는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등록도 하게 되면서 주님의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배우자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혼의 축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래보다 늦은 결혼이었기에 자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에 주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그 상황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마침내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 저의 마음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지? 언제쯤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바라는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금한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예비해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송인호 성도 / 할렐루야 찬양대

함즐함울이 읽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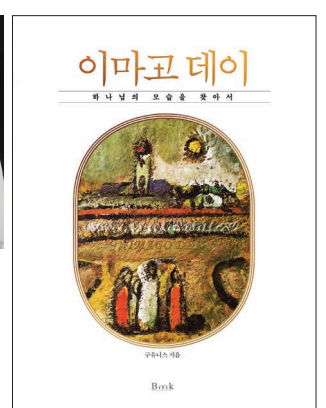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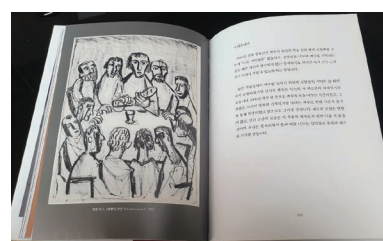
이마고 데이 -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많은 작품들에서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성만찬의 식탁은 늘 화려하게 표현되었지만 당시의 현실은 디크의 저 최소한의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의 한 만찬은 예수의 몸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그 만찬은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예수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통해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의 선행은 변함이 없고, 인간 군상의 모습은 이 작품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한자리에서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오토 디크의 <최후의 만찬>은 넓은 상 위에 펼쳐진 음식 접시들을 앞에 놓은 채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너무 다르다. 이 책은 우리가 보통 ‘성화’라는 이름으로 보아왔던, 제도적인 후원을 배경으로 장엄하고 거룩하게 그려진 성화들이 아니라, 화가 개개인의 신앙과 구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된 화가들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 16세기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를 제외하고, 이 책에 수록된 화가들은 루오와 샤갈, 파울 클레, 오토 디크, 니콜라 사리치, 막스 리버만과 같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20세기의 인물들이다. 저자는 그래피티 화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의 다소 당황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모세와 이집트인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낸다.

“이십 대 초반의 바스키아, 그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대에 시각적으로 가장 선명한 기호로 우리 앞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오랫동안 우리의 눈에 클리셰로 작동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함즐함울



구유니스 지음, 비엠케이, 2022.

겨자씨 나눔 이야기

주 사랑!! 세대를 초월합니다!!

여름으로 가는 나무의 새순을 보신 적이 있나요? 새순의 색을 연두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보고 있는 눈에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고 곧 짙은 초록이 되어 버리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주죠. 우리 겨자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나면 그 안의 나는 잔잔한 안정감을 느끼며 따뜻함 속에 어린아이가 되어도 용서가 되고 응석을 부려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아쉬움에 다음 만남을 약속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주 앞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은 4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거야?” “못하는 이야기도 많지 않을까?” 겨자씨의 구성원을 보고 다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익숙해서 그 안에서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먼저 나의 세대를 거치신 어른들의 삶과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위치가 어떤지 생각해보고 방법을 배우며 나로, 부모로, 주님 사랑을 갈망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겨자씨모임에서 항상 나누는 이야기는 살아온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된 어찌면 내가 놓쳤던 주님, 위기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 주님 말씀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세상 삶에서 느꼈던 중요함이 무엇인지. 여러 이야기가 경험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노년이 되니 보이는 삶의 아쉬움, 감사함, 힘차게 뛰어다니는 세대로 겪는 어려움, 필요함. 정말 세대의 모든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그 안에서 고민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시간의 아쉬움을 안고 헤어집니다.

힘들어 울고 있는 손에 화장지를 건네주시며 사랑의 울음은 많이 울어도 괜찮다고 등을 어루만져주시는 어른들 앞에서 누가 미움과 화남을 기억할까요? 평평 울고 그 자리를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감정은 아마 주님 주신 사랑의 역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게 오랜 시간을 주님은 우리 겨자씨와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옆에서 기어 다니고 징징거리며 울고 있는 아이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젊은 엄마들이 아쉬워서 아이를 봐주며 말씀에 참여하라고 등 밀어 주시는 권사님들 덕에 겨자씨모임의 자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서로 웃으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를 기억하는 20대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트리는 아마 평생 커다란 기쁨의 나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간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한 번씩 교회 정원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얼굴보고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 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기억했습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의 사랑으로 세대를 초월한 우리 스카이웨이겨자씨! 언제나 주의 사랑의 따뜻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밝은 웃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5월의 모임을 기대합니다.

이승란 집사 / 6교구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주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님이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소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글함글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소개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교회 남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 모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44회기 회장 이상근 장로(고덕교회)입니다. 남선교회연합회 중점사업에 대해 함글함글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있으며 71개 지연합회 70 만명의 남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도 지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5대 중점사업으로 (1)국내 선교 (2)해외 및 북한선교 (3)지노회연합회 조직강화 및 연합사업 활성화 (4)1.5.3운동 전개 (5)중장기발전연구 사업에 71개 지노회연합회와 함께 동력하며 회원모두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업 외에 중점사업으로 (1)해외 및 국내선교사 지원, (2)군선교(진중세례 참여) (3)수도권 조찬기도회 매월 참여 (4)모범학생 장학금 지급 (5)평남노회 체육대회 추진 (6)선교찬양 합창제(해외선교기금 마련) (7)교도소 방문 선교 (8)매월 순회헌신예배 (9)서울역 밥사랑봉사와 청량리 밥퍼 (10)소년소녀 가장돕기 (11)독거노인 연탄지원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44회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방역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가능한 사업의 대면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선택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44회기는 임직원 회비와 평남노회 교회 내 상회비 그리고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돕기 위한 상회비를 납입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평남노회 각 시찰회에서 추천하는 교회와 국내외 선교사 및 소년소녀 가장 및 믿음의 불우형제자매를 돕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주님의교회 교우들께 소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장로 /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고덕교회



아기 나들이

2022년 4월 24일

아가: 곽지안 (2021년 8월 31일)
아빠: 곽 경 성 도 엄마: 서오경 성도

▶ 자녀를 위한 기도

1. 온화한 성품과 사랑 가득한 심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2.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3. 지안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를 깨우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어버이날 어르신 선물 나눔

오월은 가정의 달, 5월 8일 어버이주일에 교회에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어르신들 모습들은 아직은 마스크로 얼굴이 반만 보이시지만 즐거워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서이신지 서로 안부도 묻고 악수도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며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아쉬움을 잊게 한 귀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날씨도 화창했던 어버이주일은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교회 로비에서 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느꼈습니다.



함글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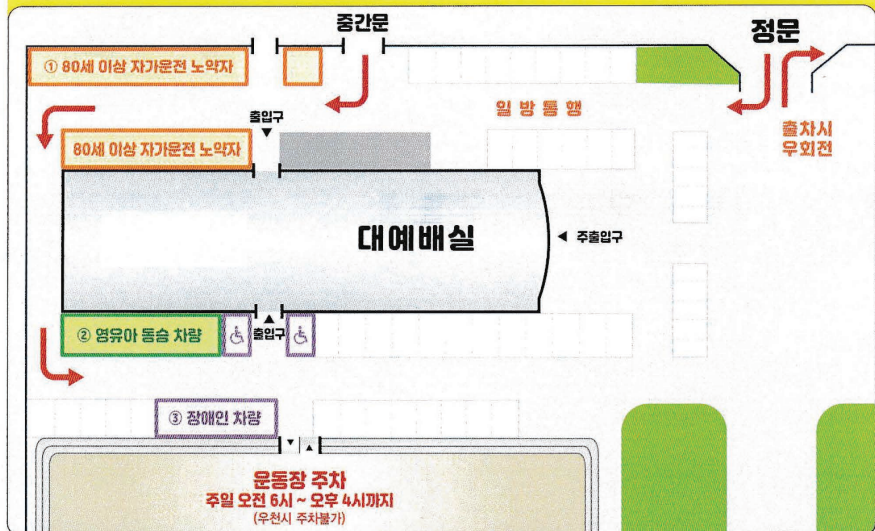
주차질서 안내

1. 모든 차량은 사무국에 등록 후 **주차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차량 변경시 주차증을 재발급)
2. 정신학원 내에는 학생들의 면학을 위해 **주중 주차금지**
3. 운동장 주차는 **주일 오전6시~오후4시까지**만 허용 됩니다. (우천시 주차 불가)
4. 교회 진입시 30m전방에서 방향등을 점등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운동장 주차 후 **보행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바랍니다. (안전에 위해 램프보행 금지)
7. 주차안내부 봉사자들의 **유도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일 전용주차구간 안내

1. 공원 쪽 주차장은 **80세 이상 자가운전노약자**
2. 운동장 쪽 교회 방면 주차장은 **영유아 동승 차량**
3. 운동장 쪽 냉각탑 방면은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공간입니다.



주님의교회 사무국

교회일정

- 5/15(주일) 교사주일, 청년주일
공동의회(항존직 선거1차)
- 5/22(주일) 공동의회(항존직 선거2차)
- 6/1(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6교구 주관)

알립니다

1. 2021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일시 : 1차 5/15(주일), 2차 5/22(주일) 08:00~15:00

장소 : OMR(종이)투표 ▶ 교회 식당(지하)

모바일 전자투표 ▶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선출인원: 장로(10명), 안수집사(20명), 권사(20명)

▶ 각 항존직 후보 명단은 복도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 주차안내부원 모집

문의 : 배기호 안수집사(010.7124.2936)

3. 주방부원 모집

1부(06:00~09:00), 2부(09:00~11:00),

3부(11:00~13:30)

문의: 김현희 권사(010.2289.9258)

4. 하임찬양대원 모집

교회주관 천국환송예배 시 찬양으로 위로하는

하임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예경 권사(010.9415.0619)

5.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